

## 미국·독재자들의 검은유대 '사회진보를 막아라'

'민주' '인권' 내세워 약소국 민주 파괴·인권유린

### 차례

1. 들어가는 글  
전쟁의 배경과 '본질'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가?

2. 그들만의 명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 ①

'자주'의 썬은 모조리 질러라.

-지주의 민주정부 수립과 자립적 민족경제 실현의 원천 불쇄

3. 그들만의 명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 ②

'친미'하는 군부·독재자는 평화의 수호자(?)

-미국의 '자유', '인권옹호' 논리의 허구

4. 그들만의 명분으로 자행되는 범죄행각 ③

파권을 위해서라면 민족분쟁, 지역분쟁도 조장하라.

-민족간 민족분쟁, 지역분쟁은 미 파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5. 결론

이제 '경찰국가'의 자만에 중지부를 찍는다.

사실 세계에서 민주주의 정파를 외교 정책의 주요목표로 삼은 나라가 미국 아니었는가? 점에 대해서 곱곰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미국은 자신만 외교정책의 기조로 민주주의를 정면에 내세워온으로써 자신들이 행했던 지난친 간섭행위나 자기 과시행위 그리고 협정적인 여러 정책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흐름성을 가질 수 있다. (로널드 러스, 경제학의 유혹)

### 자유와 민주 깃발은 공작활동

미국은 냉전시기부터 사회주의 나라들을 붕괴시키고 동시에 민족주권과 사회민주주의를 회피하는 정치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제3세계 나라들에서의 사회혁명을 방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3세계의 억압적이며 폭력적인 정치세력과 겹은 유대를 맺어왔다.

지유의 여신상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미국은 자신을 자유와 민주 나라로 포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표방하는 자유와 민주의 이면에는 자국의 경제, 군사집약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외정책과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제3세계 나라 민중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치는 압박과 민주주의 끊임없이 강행되었다.

세계체계의 요소지, 중국에서 미국은 자신의 파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부터 이 지역에 민족적이며 혁명적인 세력을 읊눌하였다. 그러다보니 반민성향의 이리크 후세인·정경원이나 리마이·카디피정권을 견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제3세계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한 교양과 경제적 기반을 가진 빅브레이커로 집단들로부터 부단한 도전에 직면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민주주의 체제들에 대한 일관적 지지와 미국의 인권외교로 어정쩡하게 걸친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정권은 1953년, 미국 CIA가 군부쿠데타를 배후조종에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왕정정치를 이란에 부활시키면서 역사의 뒤이길로 사라졌다. 미국은 중동에서 비로 그와 같은 건설한 민족주의적 개혁주의 정치세력을 압살하는 가운데 친미적인 불공정한 왕정정치와 반미적인 친위주의적 민족주의 정권들이 서서 공생하는 구조를 지속시켜온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수단의 대표적인 기관인 CIA는 제3세계의 자유와 민주를 짓밟는 온갖 공작활동을 하고 다니는 배후에는 그 해당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 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사네로 경기는 근대적인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가진 민족적이고 혁명적 정권이었다.

그러나 이 정권은 1953년, 미국 CIA가 군부쿠데타를 배후조종에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왕정정치를 이란에 부활시키면서 역사의 뒤이길로 사라졌다. 미국은 중동에서 비로 그와 같은 건설한 민족주의적 개혁주의 정치세력을 압살하는 가운데 친미적인 불공정한 왕정정치와 반미적인 친위주의적 민족주의 정권들이 서서 공생하는 구조를 지속시켜온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수단의 대표적인 기관인 CIA는 제3세계의 자유와 민주를 짓밟는 온갖 공작활동을 하고 다니는 배후에는 그 해당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 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그 지역의 수출하고 압축적인 정치세력과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 카탈리나 국제학부 이삼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가장 전에서 시각으로 상징되는 권리주주의, 군국주의적 자본주의의 체계들이 폭넓고 이전까지 서구와 미국의 이론과 민주적 자본주의의 질서가 주도권을 잡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체계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세계 사회들의 봉건적 지배세력은 민족해방과 사회민주주의를 회피하는 정치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제3세계 나라들에서의 사회혁명을 방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3세계의 억압적이며 폭력적인 정치세력과 겹은 유대를 맺어왔다.

지유의 여신상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미국은 자신을 자유와 민주 나라로 포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표방하는 자유와 민주의 이면에는 자국의 경제, 군사집약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외정책과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제3세계 나라 민중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치는 압박과 민주주의 끊임없이 강행되었다.

세계체계의 요소지, 중국에서 미국은 자신의 파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부터 이 지역에 민족적이며 혁명적인 세력을 읊눌하였다. 그러다보니 반민성향의 이리크 후세인·정경원이나 리마이·카디피정권을 견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제3세계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한 교양과 경제적 기반을 가진 빅브레이커로 집단들로부터 부단한 도전에 직면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민주주의 체제들에 대한 일관적 지지와 미국의 인권외교로 어정쩡하게 걸친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정권은 1953년, 미국 CIA가 군부쿠데타를 배후조종에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왕정정치를 이란에 부활시키면서 역사의 뒤이길로 사라졌다. 미국은 중동에서 비로 그와 같은 건설한 민족주의적 개혁주의 정치세력을 압살하는 가운데 친미적인 불공정한 왕정정치와 반미적인 친위주의적 민족주의 정권들이 서서 공생하는 구조를 지속시켜온 것이다.

이란의 모사네로 경기는 근대적인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가진 민족적이고 혁명적 정권이었다.

그러나 이 정권은 1953년, 미국 CIA가 군부쿠데타를 배후조종에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왕정정치를 이란에 부활시키면서 역사의 뒤이길로 사라졌다. 미국은 중동에서 비로 그와 같은 건설한 민족주의적 개혁주의 정치세력을 압살하는 가운데 친미적인 불공정한 왕정정치와 반미적인 친위주의적 민족주의 정권들이 서서 공생하는 구조를 지속시켜온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수단의 대표적인 기관인 CIA는 제3세계의 자유와 민주를 짓밟는 온갖 공작활동을 하고 다니는 배후에는 그 해당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 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현상, 칠레의 반피노체트 운동, 브라질의 민주화운동, 광주에서 전개된 강력한 민주주의 운동을 보라. (이상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당대, p. 96)

### 인권 면밀삼아 민족분쟁 개입

또한 미국은 인권옹호의 명분으로 수많은 나라의 민족분쟁에 빠짐없이 끼어들어 자국의 군수산업의 활성화를 피해왔다.

어떤 한나라의 내부에서 민족 분쟁이 일어나 그것이 억압된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그 나라의 국가주권의 범위 안에서의 문제다. 그러나 혼란이 국경을 넘어서 확산되어 다른 나라에 위협을 줄 때는 외부세력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나라의 내부가 다른 나라에 위협이나 불안의 요인을 가져다주는 것은 점차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오히려 내장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상식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유고나 소말리아, 이라크 등 중소국가에 대한 개입은 가능하지만, 대국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 기준을 공평하게 설정할 수 없다

면, 보편적인 법칙이란 있을 수 없다.

다른 나라에 대한 위협으로 별개로 인권이나 인도주의를 근거로 한 미국의 개입은 수도 없이 많다.

이라크·북부 쿠르드족구나 남부의 이슬람 시아파 지구, 그리고 소말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최근의 코소보

에 대한 개입은 모두 인권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냉전시기부터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 중 하나인 타이거는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인권유린으로 예나 지금

이나 억압이 높은 나라이다.

국제사랑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미국 지부장인 윌리엄 숄츠(William Schulz)는 1995년 7월, 타이거를 기념하면서 "나라의 동맹으로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혼란을 넘어서 확산되어 다른 나라에 위협을 줄 때는 외부세력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나라의 내장이 다른 나라에 위협이나 불안의 요인을 가져다주는 것은 점차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오히려 내장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상식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유고나 소말리아, 이라크 등 중소국가에 대한 개입은 가능하지만, 대국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서방이나 인권 무시라고 비난되었던 천안만사나 이후의 중국이나 미얀마의 군사정권 등에 개입하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입하기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에 따른 나라이 대해서 개입을 보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개입대상국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국외 추구를 위해 인도니아 인라인이나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려는 티산이 섞이게 된 다.

미국의 소말리아 파병은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실시되었으며, 1993년 1월 20일까지 20여명의 미국군을 훈련시킨 후에 인도니아 인라인 타이거는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인권유린으로 예나 지금 무트를 계획한 미국은 이전에는 현지 세력의 무장해제에 적극적이었고, 나이가 새로운 정부 수립으로의 관여까지 논의되고 있었다. 미국 주둔은 1년 이상으로 장기화되었지만, 국경을 넘어서는 티산과 함께 훈련된 군인들은 1995년 7월, 타이거를 기념하면서 "나라의 동맹으로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혼란을 넘어서 확산되어 다른 나라에 위협을 줄 때는 외부세력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라크는 또 리타 아베리카 전

반에서 이어도 미국 CIA는 그 지역의 무장 세력과 비밀단체들과 연계하여 고문, 살인, 성종 등 각종 인권유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역시 서방이나 인권 무시라고 비난되었던 천안만사나 이후의 중국이나 미얀마의 군사정권 등에 개입하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부



미국은 인권옹호의 명분으로 수많은 나라의 민족분쟁에 빠짐없이 끼어들어 자국의 군수산업의 활성화를 피해왔다

## 한총련 출범식 가자구요!

7 기  
한총련 출범식에  
백만 청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에서 열린 2기 한총련 출범식으로 광주시 내 삼관이 호경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각 시에서 매년 한총련 출범식을 개최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 할 것으로 보인다."  
(95년 광주지역신문 출판)

"3기 한총련은 대구·경북 대에서 열리고 있는 출범식 일정 중 대구가 특별 사건 피해 시민들을 위해 수천명의 속속학생들이 현행하는 등 대구시의 문화 기관 출판하게 하고 있다"  
(95년 대구지역신문 출판)

?

(95년 대구신문)

일시 : 5월 28일(금)~30일(일) 장소 : 서울에서

일간지에서 조치 한총련 출범식에 대해 호평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운동을 위해 싸운다는 것

94년 UR체육선수

95년 광주학살자 처벌 투쟁

95년 미국의 전쟁책임 반대

IMF 경제침탈 반대 투쟁

한총련 출범식은

백만 청춘의 축제의 참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 심 총취재-대학생들의 리포트 문학

## 99년 대학가, '베끼기' 성업중

"리포트요? 대충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안 들고있는데로만 정리해서 내요" (장영식, 삼경·경제 3) "제 의견을 편치는 것을 중심으로 자료는 '근거'로 첨부하는 정도예요" (이은진, 대학원 양어·문학전공 1학기)

대학내외에 시험만큼이나 부루스런 존재는 아마도 리포트(보고서)일 것이다. 과에 따라 다르지만 한 학기에 한두번 이상 리포트를 쓰지 않는 학생은 드물 것이다. 리포트는 배운 과정을 다시 소화하고 자신의 논점을 편치는 연습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저자 언급한 사례와 같이 책이나 자료를 단순히 침기기한다는 더 나아가서는 '베끼기'는 관행이 만연하다. 미안하고 암송해 교수는 "학생들의 복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운 부분을 요약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그걸 미스钿을 보내면 괜찮은 것 같아"라는 경도로 많다"라고 전한다.

개나기 최근 인터넷 공간에는 각 학부마다 리포트 원문이나 자료들이 구비된 '리포트 도우미'라는 사이트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과 박희영 교수는 "교수들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학생들이 사이트에서는 리포트 자료 외에 '리포트 작성법'·'표지 만들기'·'글구 리포트 신장'·'동의

방법'에 있어 별다른 노력 없이 리포트를 쓸 수 있는 민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대학사회의 표절 평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이 이 '리포트 도우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비슷한 리포트를 살피고 도움을 찾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희준(서양·불어 2)군은, "리포트가 겹치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공부'의 연속이다. 만약 베끼는 리포트로 좋은 학점은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노력한 다른 사람이 손을 봐게 된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준은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라고 비판한다.

한편 학생들은 '베끼기'나 '베껴쓰기'를 하기 위해 유발되는 교수들의 교습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서관에서 만난 밤진현 (서양·영어 4)군은 "매번 같은 주제, 시험문제를 제출하는 교수님들이 많다. 그래서 학생들도 리포트를 관심으로 대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과 박희영 교수는 "교수들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학생들이 사이트와 함께 교수들의 교습방식에 대한 문

제제를 한다.



제제를 한다.

"리포트 베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는 베끼기, 표작을 용이하게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성은 물론, 학교와 학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같은 특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한국대학육연구소 김상호 연구원은, "이는 과정과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 구조로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었을 때 주제, 주제 교육 등을 통해

장서운 기자

## (4) 영화로 읽는 채코 문학 - 콜리야

## 동심의 눈에 비친 역사의 격동기

1997년 아카데미 위원회는 러시아의 한 작은 끼니마가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안겨주었다.

5살짜리 러시아 아이가 중동유럽 영역사에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해준 사건이었다. 사위기를 전하기 삼아 귀에 대고 보고싶은 할아버지를 그리며 커다란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장면은 본 전 세계의 네트워크 또한 이 영화에 '나에게 별'을 주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러시아 영화가 아니라 한때 소련의 위상국이었던 체코 영화였다.

그 해 끝은 글로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과 동경영화제 최우수 작품은 물론, 체코 국내 영화제에서 이 영화에 거의 모든 상을 안겨주었으며, 수많은 한 미국계 불교비스터를 끌어들이고 흥행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었던 이 영화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렇듯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천진난만한 아이가 등장해 웃음을 주고 웃음을 주었던 영화가 얼마나 많았던가? 국내의 영화관들 역시 이 영화를 기준

의 '아이영화'로 치부해 버렸다.

우리의 정서와 이 영화에 환호하고 최고의 영화와 평했던 사람들의 정서가 다른 것인가?

체코는 중부유럽에 위치해 있는 국가이다. 우리에게는 '프리하의 복'과 이반센, 나브리탈로바, 코르다 등 테니스의 국가나 아니스코프의 학술원은 우리에게는 낯설거나 아울러 알 만한 단편일 뿐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육연구소 김상호 연구원은, "이는 과정과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 구조로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었을 때 주제, 주제 교육 등을 통해

혼자기 된다. 결국 콜리야는 법적인 아버지 후기에게 맡겨지게 된다.

중년의 소련주석이며 비판동지이자 아버지를 싫어하는 부자는 콜리야를 귀향시킨다. 그것을 방해하는 세 아이를 떠나버리려 노력한다.

콜리야 역시 무뚝뚝한 루카를 싫어하기는 미친가지. 루카가 러시아어에 서투른 반면, 콜리야는 그의 표작을 할 줄을 모른다.

우여곡절 끝에 물은 헌기지고, 마침내 콜리야는 루카를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

이제 물은 50세이라는 나이처를 뛰어넘고, 민족장을 끼어들이며 하나가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아동 영화의 전형이다. 그러나 안 스플라인 감독은 '콜리야'를 단순한 가족영화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1988년에서 1989년으로 이어지는 체코 역사의 적폐기를 '콜리야'를 통해 보여 주려고 했으며, 체코와 러시아의 절끄럽고 미묘한 관계를 유심적으로 표현하였다.

마침 돈이 필요했던 루카는 이 영화에 응한다.

그러나 곧 여자가 독일로 떠나고 아이의 할머니 미지 죽자, 러시아 아이(콜리야)는

김신교  
(체코어와 강사)

##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김길동 저음  
비단원판사  
8,000원

천리도망은  
해도 팔자도망  
은 못 한다더니

신봉선 저음  
작정선  
7,500원

5월에는 연예를  
시작한다

연극실험실  
해동번역  
원의 222-7114

학내  
문화행사  
일정표

조선 500년 근대화 100년,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범'을 위한 도덕이거나 '정치'를 위한 도덕이었고, '여론'을 위한 도덕이었고, '군사'를 위한 도덕이었고, 심지어 '주권'을 위한 도덕이었다.

이 책은 사동을 넘어서 대변되는 신분 사회, 토론 부재를 낳은 가부장 외식, 위선을 부추기는 군주의 군리, 여성 차별을 부른 남성 우월 외식의 문제를 불러온 유교문화의 문제점을 날弊端로 폭로한다.

'어머니는 늘 웃는 모습이었다.'  
30년을 연탄기스에 몸이 삭고, 하루 서너 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던 어머니. 난 너무 일이 많아 물에 적신 슬퍼치가 될때면 어머니를 떠올린다.

어머니보다 낫다고·제자의 글 중

이 책은 이시각을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솔직 담백한 필체로 그려낸 하나의 '감동신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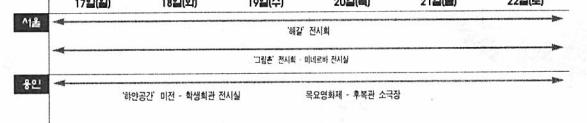
저자는 기난하던 시절, 그래도 어머니 덕에 웃을 수 있었던 이런한 기억들을 더듬고 있다.

언극실험실 혜동 1층에서 초창기으로 극단 오늘의 위성신작 · 연예의 6월에는 연예를 시작한다'를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제목이 말해 주듯 남녀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재회의 과정을 재미있고 상큼하게 그려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이 연극의 미력 속으로 빠져든다.

설연회 기득한 뜻진한 사랑의 기억을 가진 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재미를 느낄 작품

생활  
활  
시  
평

## 꼭 해야할 일

어버이날이었다. 본인 기자들이 경경자 할머니를 찾아갔다. 정찰마다는 얼마 전 우리 학교에 1억의 장학금을 기증해 장내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할머니에게는 경찰마다는 말이 생겼단다. "문제 끝나지만, 외로운 것이 제일 힘들어. 사람들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일각에서는 경찰마다는 데까지 굳이 받아야 하는 말도 있었고, 한편 경찰마다는 평생을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등을 최대화로 있었지만, 할머니는 대체 계시지 않았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통행한 말에 의하면 빠듯 하시다는 것이다. 이후에 한 사연이었지만 할머니는 경희대학교 입원하면서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 할머니는 진정 이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따뜻한 가족같은 보살핌일 것이다. 일어나 일을 힘드는 할머니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 일부 전에 들은 뉴스는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한다. 우리 학교가 경찰마다와 함께 지난번 범죄에 3억을 지원해온 경찰마다는 일리가 있었다. 외대생들에게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아무도 찾아오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할머니에게는 끝내 한 번 찾았다고 한다. 할머니에게는 명예를 인정해주는 것과 부족한 요인도 가지 못한다고 한다.

문화부장

## 나나보기 - 출범식 앞둔 융산율동 패연합 패장을 만나

## 두살박이 왕율연의 힘찬 출발

율동은 풍물, 민속기요와 함께 대학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예를 중 한다. 유통은 특히, 단순히 '보여주기'의 차운을 넘어서 관중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출중식과 힘을 모으는 성동적 역할을 수행한다.

오는 19일은 융산율동페연합(왕율연)의 2기 출범식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의장 황율연(자연·율리 2)을 만나 그간의 활동내역과 융율연의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왕율연의 건강배경은

각 단체마다 존재했던 유통파들이 내용·활동성 등을 넓히기 위해 하나의 연합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작년부터 유통파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시작됐고 2기까지 무렵 처음으로 '왕율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게 됐다. 이전 2기지만 실상 출범식은 처음인 셈이다.

각 단체 유통파의 상황과 그간 '왕율연'의 활동내역은

올해로 생애 20년인 황율연은 7명, 자랑하는 20여명 등 각 단체마다 편자는 있지만 모두 합치면 약 80여명의 패밀리들이 있다. 지난 세 터제 '세내기 준비위원회' 활동을 했던 세내

기들이 많이 들어와 패인수가 많아졌다. 매주 수요일마다 각 단체 패밀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활동한다.

활동내용은 정기행사(봉사, 대제작, 제작 등) 학교 행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참여했고 작년 2기기에 '울동 청자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등록금삭감에 관한 집회에 많이 참여했다.

울동파가 기존의 것을 딛을 때는 그다음은 지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점 중 하나다. 실제로 '왕율연'은 보유 템플 등도 모자라 창작활동의 제작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경찰대학회도 개최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기존의 괴리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울동파에게는 경기동부지구 유통과 전수학교 등에 참여해 창작 부문을 보완할 생각이다.

작년 10월에는 융산율동페연합(왕율연)의 2기 출범식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의장 황율연(자연·율리 2)을 만나 그간의 활동내역과 융율연의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 시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유통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많은 민족 학생들에게 유통을 직접 경험해보아야 한다는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 대체 때에는 '창작 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유통을 많이 부르고 생활에 활용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관계에 유통을 직접 경험해보아야 한다는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 대체 때에는 '창작 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유통을 많이 부르고 생활에 활용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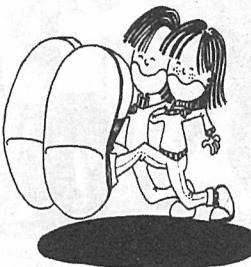
장서운 기자



구분	학 生			대 학 生	
	아침	점심A	저녁	밖	일품요리
월 (17일)	복어국밥 (W1,500)	사과오거지국밥 (W1,400)	설렁탕 (W1,500)	청나라김밥국 (W1,300)	소고기국밥 (W2,700)
화 (18일)	소고기미역국 (W1,000)	한치회밥밥 (W1,500)	비프하나파이 (W1,400)	단무진김밥국 (W2,300)	나치부리김밥국 (W3,200)
수 (19일)	대구매운탕 (W1,400)	불고기밥국 (W1,500)	짜장국 (W1,300)	순두부국 (W2,300)	오므라이스 (W2,800)
목 (20일)	애호박진짜찌개 (W1,300)	계개장 (W1,500)	소고기바지막국밥 (W1,500)	보리국부국수국 (W2,300)	진짜국수국 (W2,700)
금 (21일)	불고이찌개 (W1,300)	콩나물비빔밥 (W1,200)	돈육볶음국밥 (W1,400)	무한정국수국 (W2,300)	미트버거케이터 (W2,500)

구분	어 문 관				
	중식1	중식2	중식3	석식	분식
월 (17일)	대파두부국 (W1,400)	유자단 (W1,800)	아보카도기스 (W2,000)	깻잎국어찌개 (W1,400)	모짜렐라피자 (W1,000)
화 (18일)	삼각김밥 (W1,400)	생나물국수 (W1,800)	훠이트리니엄국밥 (W2,000)	두부국수국밥 (W1,300)	김치국수국 (W1,000)
수 (19일)	김치볶음밥 (W1,400)	제육볶고기반찬 (W1,800)	생선가스 (W2,000)	새우국수국밥 (W1,400)	모짜렐라김치국 (W1,000)
목 (20일)	소고기夫妇 (W1,400)	삼겹살 (W1,800)	후라이크진자리 (W1,400)	비프파인먼 (W1,000)	스페셜마운틴 (W2,500)
금 (21일)	행복음밥 (W1,400)	광평비빔밥 (W1,800)	비프파인 (W2,000)	된장국수국밥 (W1,400)	밀크그린웨이 (W1,000)

## 대학문화, 너를 말한다!



(1) 서론-대학문화를 생각한다.

99년의 대학가 과연 '대학문화'는 존재하는가?

기미술처럼 우리 일상을 엮어매는 자본의 힘으로 인해 실상 '대학문화'와 '대학문화'의 경계지점이 모호해진 이 때 그래도 우리는 대안적 측면의 '대학문화'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탐구대상은 다른 아닌 외대내의 교수·직원·학생 주체이다. 지난 해부터 급박하게 진행했던 학내회를 돌아보며 우리시대의 대학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자 한다.

편집자

## 일방적 주장은 금물

영화, 풍물과, 도서관, 문구점, 소극장, 뮤, 민중가요, 사발주, 토익특강, 디자이...

위에 나온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을 꼭 잡아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모두 대학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꼭 잡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대학이라는 공간안에 존재하는 문화가 현실이 대학문화의 기본 전제임 것이다.

그러면 대학문화란 무엇인가? 대학 안에 존재하는 문화적 현상이며 모두 대학문화이다! 현실 우리의 대학에는 너무나 다양한 문화담론이 형성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입장, 비판들 넘쳐나고 있다. 한 개인으로서 모든 문화를 체험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문화의 폭이 넓어졌고 깊어지고 깊어졌다. 이것은 과거 문화라는 것이 일상 관심있는 사람이나 전문지식, 기능을 갖는 사람들의 독점으로 인식되었던 것에 비교해보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문화의 개체, 단순한 현유지, 전달지로서 객관적인 태도에 머물렀던 대중들이 드디어 문화의 주인, 주체로 나서면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대한 민족의 흐름이 역사의 물결을 따라 수동과 굽힘의 삶을 치르고 자기 삶의 문명의 주인으로서 시작한 것을 기억한다. 노예, 노비가 없어지고 혹은 대학을 다니게 되었으며 여성의 부표권을 가지기 시작한 것처럼 문화도 일부 상류층의 전유물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삶의 양식들이 문화로 인정받게 되었고 기능·민족도 자신들을 문화를 경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70년, 80년대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문화의 주제로 서있었지! 얼마나 많은 대학문화 현상이 나타나었는가! 이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문화는 뛰어난 한 두 사람에 의해 창조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계층민의 주제로 대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문화의 주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문화는 풍부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화, 특히 대학문화를 경의하는 것은 무언이나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무모하기도 하다. 이토록 다양한 문화적인 현상을 한미대로 경의하고 범위를 한정시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류를 수반한다. 문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인 제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우리는 대학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



## 문화단신

사과분과 공개시사 토론회

## 동연, 대표자수련회 개최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수련회가 오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영월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다. 동아리간의 교류보다, 각 동아리 활성화 방안 논의 할 이번 행사는 특히, 환경보호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MBTI(자기애중증 프로그램), 대표자회의가 열리고 둘째날에는 동강 살기환경 세미나 및 동강 복원 탐사가 있을 예정이다.

또 미아재난에는 동아리 단합을 위한 서비아벌 게임도 준비된다.

동아리연합회장 오아종(인문·철학 4)군은, "단필원 동아리간의 교류를 확보 더불어 동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전한다.

동아리연합회 사회과학분과 9개 동아리에서는 지난 14일 (금)부터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사회분과 공개 시사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트북에서 개최된 첫 토론회는 '지하철 과정에 대한 언론 편향 보도'에 관한 주제로 충파에 대한 일간지 기사를 보여주고 이를 대량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동강 사회분과 이승우(사회 정의 3)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생에 대한 관심과 토론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학우들이 인식해줄 바란다"라며 말했다. 한편,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코스모사와 함께 보고서를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외대통기타반' 정기공연 열려

지난 14일(금) 풍기타 동아리 '외대 통기타반'의 스플릿체 정기공연이 대학원 소극장에서 열렸다. 음악축의 푸르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에서는 '유마이탈' '유혹' 등 6곡의 창작곡과 'I will be there' 내 마음의 풍경 등 7곡의 연주곡이 연주됐다. 창작곡 중 '유마이탈'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후의 감정을 잘 표현해 주목을 받았다. 회장 김재호(사회·신방 2 휴학)군은 "아마추어 작곡자의 노력이 배어있는 노래인 것을 관객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연을 보려온 주상영(연세대 사회과학대학 1)양은 "공연장의 가족같은 공연 분위기가 인상 깊었고, 창작곡이라 신선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하얀공간' 볼정기 작품 전시회

미술 동아리 '하얀 공간'의 서론 여섯번째 전시회가 오는 17일(화)부터 22일(토)까지 6일간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그림에 대한 자본을 넓히고 신입부원들의 첫 작품 전시는 퇴지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40여점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행사를 준비한 회장 박경운(공대·제어계측 3)군은, "이미주어 아름동이의 작품 세계를 많이 와서 봤으면 한다"라고 전한다.

## 외대인의 외대인에게

## 제1회 인문대 '애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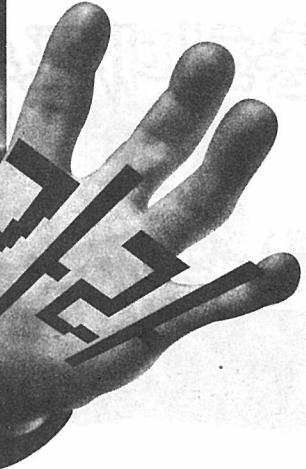
## 세상의 스파르타쿠스가 되자!!

지금의 대학은 고등학교 공부의 연속입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오직 대학을 목표로 하는 우리는 잠시 숨을 쉴 틈 없이 토익과 토플을 기방에 쏘아넣고 나를 구비할 자신의 요구가 무진 인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세습속에는 학문의 의미는 단지 나를 나은 상품으로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속에서 흔들리는 순수학문이라고 이야기 되는 인문학의 자리는 고등학교 시절의 운리 괴롭처럼 있는 하지만 그 존재 가치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교양과목의 인문학은 학점만 따면 끌어는 것이 되었고 인문학의 철학, 사학, 언어학의 어느 그 학생들이든 한번쯤 취직하면서 공부 많이 해야되겠다는 능동적인 노력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속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학문에 대한 무관심과 현하기 몹에 배인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속에서 인문학의 진정한 의미와 진리탐구와 학문의 정신으로서의 대학의 자세매김을 올곧게 하기 위하여 인문인을 스스로가 인문학의 참맛을 느끼고, 원산에 학문탐구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강연은

각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해 습니다. 일정을 긴급하게 소개하면 17일 '우리공글라이브'라는 주제로 명지대 홍순민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으로 팝 컬럼리스트 강현우의 '팝송 랙음으로 살펴보는 현대 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고, 18일에는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님으로부터 '민족·민주·학제·비판적 학문을 제창한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고 김동원 후원영상 대표님의 강연 '영화와 영상!! 이제 읽을시간'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습니다. 19일은 '온라인정부!! 파인 제 구실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이 전 서울대 교수이신 허웅 선생님의 강연과 딴자일보의 공동학위원으로부터 '디지털 속 지지자, 인증매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리보자'라는 강연이 이어 19일에는 '한국전통문화와 삼국시'에 대한 조경강연후 '대동세남국'이 열려 무속인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색다른 시간이 될것입니다.

황호우

&lt;인문대 학생회장 권현대(영·인문·사회 3)&gt;

디지털이 공연을 망치고  
에티켓이 공연을 살린다구?

에티켓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학내 공연문화 예절을 지키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빼빼나 핸드폰을 깨놓는 것은 기본이고,

공연이 시작하면 의자를 심기고...

기까운 곳에서부터 조심스런 행동을 하면

우리의 공연문화가 바뀌지요.

# “왕따는 파업참여자가 당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노조파업 이후 현장 인권침해 사례들어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이후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고, “왕따”는 복귀자들보다는 오히려 파업참여 조합원들이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하철 공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출받고 있는 ‘소명서’에 대해, 노동자들은 이를 글씨작성 반성문 또는 ‘전향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민주노총과 인권운동사랑방이 지하철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 한 989명의 노동자 가운데 79.4%(760명)가 “소명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우리”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 가운데 54.5%(535명)는 “사실상의 간접적 분위기 때문” 소명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결과, 조합원 대부분은 소명서 제출 요구가 지하철 공사측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 외로 스스로 합법인간을 부추기기 위한 것(31.0%)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할 목적으로(24.8%) △파업참여자에게 조합지도부와 격리시키기 위한 것(24.7%) 등으로 해석했다. 소명서를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생각” 한 노동자는 7.3%에 불과했다. 또한 소명서 작성 후 47.9%(309명)는 “공사의 탄압과 함께 군복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덧붙여 “소명서가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많이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에 대해 조사팀은 “소명서는 노동운동에 도입된 현대판 전향서”라며 소명서 제출을 강제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지금까지 제출된 소명서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지하철 공사측이 노동자 간의 불신과 비우기를 심각하게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측은 현장 내에서 조합원간, 직원간에 서로 풀릴 수 있는 시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문을 내려보내 고소·고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비밀 신고형식을 현장과 가정으로 보내 동료간의 밀고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처벌기지와 승무무기소에 진경이 들이와 경찰장을 직업으로 드나들 때도 신분증을 요구하고 ‘신고여서’와 ‘소명서’를 끌어들이면서 둘러싸고 있는 부위가 껴졌다”며 “예전 경찰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반인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장에서 사소한 말남새를 일어나도 즉각 경찰이 충돌에 조합원들이 보는 앞에서 팔을 쥐어 연행하는 등 공권력이 넘워되고 있다”며 “승무원들이 휴식을 취해야 할 힘실과 휴게실에 경찰이 지리를 잡고 있는 등 오히려 복귀자들이 ‘여권’을 당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김경신 기자



지난 13일(수) 새벽 6시 40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3명이 주한미국대사관앞에서 “경제침탈, 전쟁책동 중지하고 당장 이익을 떠나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에 의해 폭력연행되었다. 이들은 원희문에서 미사사교문으로 달리기며 유인을 뿐이고 미대사관 정문에 붉은 피린트빛을 던지고 신조직을 불태우며 하던날 폭력연행되었다. 이날 경찰은 사건을 찍고 있던 외신기자까지 폭력연행하는 비상식적 민족을 저질렀다.

## ‘대학언론탄압’ 갈수록 심각

지난 12일(수) 대학언론 공동투쟁 결의 대회 열려

대학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신문사 기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12일(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김태훈, 전대기련) 소속 기자 2백여명은 세종 대에서 ‘대학언론인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신문사 단감 상황을 폭로·규탄했다. 이들은 또 광화문 경찰총장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대기련은 따르면 인체대, 세종대, 서울시립대에서 1년 이상 신문발행이 중지되었고 계명대, 인제대, 순천향대에서는 기자해임과 신문사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등 각 대학별로 학보사에 대한 노골적인 ‘언론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또 대학신문의 걱정한 사회비판 목소리를 잡제하기 위해 한총련, 민주노총, 북한과의 교류 활동에 대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지 못하게 하는 등 ‘편집자윤권 침해’ 현상도 심화한다고 전대기련은 밝혔다.

이밖에 각 대학들은 ‘대학신문 탄압’ 방편으로 드라마제작과 징계를 이용해 기자를 해

임 또는 학벌하는 방법 신문화된 사식을 통해 각종 ‘위원회’를 신설해 기자들의 역할을 줄여 내기고, 급기야 ‘사상 불순’ 등의 이유로 제재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효성기술대학교 대학원생과 관광국장은 당시 기호교수의 개인적 성향이나 학교 담당 기호교수의 미련을 이유로 학생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친이 빚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또 “새로 부임한 주간 교수가 이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문제를 많아 버린다’고 하면서 학제적 체제를 제거해 주유리를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의 평화로운 협상을 보호, 확대하고 재벌지배 체제를 정부에 수요와 경영을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의 평화로운 협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경영유화와 관료체제를 청탁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시장주의를 살피하면서 이를 기득세력을 오히려 새롭게 재편·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전적으로 노동자·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0년 만에 만족하는 경리하고 재벌지배 체제를 청탁하는 것은 부조정의 철학으로 물어 부치고 싶지만 상급노동단체가 경영행위를 하는 기간에 파업과 불안한 단위조직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이다.”이라며 “여기에는 경제적인 법 해석과 적용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들이 학벌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의행위가 불법이 되어 과연지도부가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 정동주시간 단축, 시민복지제도와의 충돌, 경리하고 재벌지배 체제를 청탁하는 경의행위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의행위인 만큼, 이는 ‘산업적 경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공동기자단

## 교수 536명, 시국선언 해고반대 재발개혁촉구

전국 41개 대학 536명의 교수들은 지난 14일(금) 정부하고 중심의 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하며 재발개혁 및 사회전반의 개혁을 쟁취하겠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 김진관 교수(사회화학과)와 충북대 유초 교수(화학과)는 서면에 참가한 교수들을 만나 “교수들이 학교를 출석하는 동안 경찰관이나 법원이 상급노동단체의 경의행위를 무조개 대표해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세실태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우는 노동자의 고용과 사회보장을 보호, 확대하고 재벌지배 체제를 정부에 수요와 경영을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의 평화로운 협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경영유화와 관료체제를 청탁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시장주의를 살피면서 이를 기득세력을 오히려 새롭게 재편·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전적으로 노동자·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0년 만에 만족하는 경리하고 재벌지배 체제를 청탁하는 것은 부조정의 철학으로 물어 부치고 싶지만 상급노동단체가 경영행위를 하는 기간에 파업과 불안한 단위조직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이다.”이라며 “여기에는 경제적인 법 해석과 적용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들이 학벌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의행위가 불법이 되어 과연지도부가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 정동주시간 단축, 시민복지제도와의 충돌, 경리하고 재벌지배 체제를 청탁하는 경의행위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의행위인 만큼, 이는 ‘산업적 경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변호사들 성명서 발표 파업투쟁 정당성 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 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정회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합법이며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들이 학벌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의행위가 불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따라서 최근 경찰이나 법원이 상급노동단체의 경의행위를 무조개 대표해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세실태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우는 노동자의 고용과 사회보장을 보호, 확대하고 재벌지배 체제를 정부에 수요와 경영을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의 평화로운 협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경유화와 관료체제를 청탁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시장주의를 살피면서 이를 기득세력을 오히려 새롭게 재편·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전적으로 노동자·시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0년 만에 만족하는 경리하고 재벌지배 체제를 청탁하는 것은 부조정의 철학으로 물어 부치고 싶지만 상급노동단체가 경의행위를 하는 기간에 파업과 불안한 단위조직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이다.”이라며 “여기에는 경제적인 법 해석과 적용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들이 학벌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의행위가 불법이 되어 과연지도부가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 정동주시간 단축, 시민복지제도와의 충돌, 경리하고 재벌지배 체제를 청탁하는 경의행위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의행위인 만큼, 이는 ‘산업적 경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대중정부는 중국을 배워라 기자회견

지난 7월 1일(금) 유교연방 주재 중국 대사관이 “고려의 경밀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크로스 미사 3장을 제거한 것으로 중국인 3명이 사망하고 2층건물이 파괴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 사건으로 급속히 악화되었고, 중국정부는 “0·1년 미국의 ‘습격’은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횡포”라며 외교관계 협약 및 국제관행의 기본 준칙을 제멋대로 짓밟는 행위”라고 밝히고 미국과 중국 모두 합심의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중국인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격렬한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대사관의 폭력과 중국 본토에 폭력을 맞은 것이나 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미국의 ‘횡포’에 ‘주권수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 각국에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의해 5년 동안이나 주권침해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군사작전을 대 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것이다.

개다가 반미시위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범미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자, 미국은 우리 정부에 “반미시위가 양국간 통상협상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미시위를 막아달라는 협박성 요구까지 한 바 있다.

그래서 그런지 현정부는 미국의 경제침략과 함께 경쟁도발 묘보를 반대하는 반미시위를 적극 ‘탄압’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그 나라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중국인들의 반미시위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국민일보 1월 23일)이라고 경고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미시위를 막아달라는 협박성 요구까지 한 바 있다.

그래서 그런지 현정부는 미국의 경제침략과 함께 경쟁도발 묘보를 반대하는 반미시위를 적극 ‘탄압’하고 있다.

‘주권옹호’를 위한 우리 국민의 반미의장을 네이버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국정부가 중국인들의 반미시위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주권수호를 희우고자 하는 경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주권수호를 희우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정부가 할 일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위대의 부상을 막아야 한다.

집시법 개악 반대운동 본격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집시법 개악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5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생존권 정회·사회개혁·IMF대체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이번의 집시법 개정은 한법부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

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소하고 있다”면서 “처장과 경찰에게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전하고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제로 정부의 반민주적 성격을 여지없이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올바른 여론수렴을 위해 한심으로 선언문을 통해 “이번의 집시법 개정은

## 제23차 모의 국제연합

# 모의유엔총회대표위원회 모집

대표 위원 모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에서는  
제23차 모의유엔총회에 참가할 대표위원을 모집합니다.

주제 : 21세기 시민사회건설을 위한 NGO의 위상과 역할

모집대상 : 서울 소재 대학의 모든 대학생  
지원자와 국제관계에 관심있고 해당언어에 능통한 학생  
모집언어 : 한국어·영어·불어, 독일어, 서부아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아프리카어 등(유엔에 기입한 모든 회원국의 언어)

모집기간 : 5월 10일~5월 24일

지원방법 : 각 학교 이문계일 및 사회과학대학 학과장실 또는 학생처에 배치된 지원서 작성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관 2층 모의국제연합으로 제출

연락처 : TEL : 961-4458 FAX : 961-4458

Homepage : <http://www.shinbiro.com/~moduelon>

## 청년실업, 우리는 IMF반대를 외칠 수 밖에 없다

2. 외대인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 김대중정권 실업정책 '개선해야한다' 85%

외대인들의 반수 이상이 실업문제의 원인을 IMF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해서는 4명중 3명이 미비하거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전자 및 신규 실업대책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규실업자에게 최소 생계비 지원 및 최저생계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정부와 같은 실업문제, 특히 대체 미취업 문제의 원인에 대해 설문대상자中的 50%가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때문에 그리고 담당 사람은 5.7%(8명)가 불리웠다.

이는 실업문제의 원인이 IMF가 강요한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대응하여 미비하다(25%) 학생회와 각 사회단체에 알려 조치적으로 대응하겠다(39%)'라고 답변하면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라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이같은 인식은 정부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실업대책에 대한 외대생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현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해서 미비하다(39%)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각각 77명과 27명으로 전체의 85%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비롭지다'와 '경제위기 시대에 어쩔 수 없다'라

는 의견은 각각 2명과 16명에 불과했다. 이는 실업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능력부족이 아니라 IMF와 정리해고 중심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현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실업방지 및 실업대책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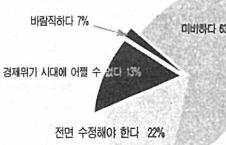
(복수응답)에 가장 많은 학생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60명)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규실업자에게 최소 생계비 지원 및 최저생계비책 마련(50명), 공공근로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마련(39명), 재교육을 통해 취업 능력 향상(34명) 등을 꼽았다. 이런 결과 역시 학생들이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반대하는 맥락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만약 자신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는 질문에는 64%가 부당노동기업을 고발하거나(25%) 학생회와 각 사회단체에 알려 조치적으로 대응하겠다(39%)'라고 답변하면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라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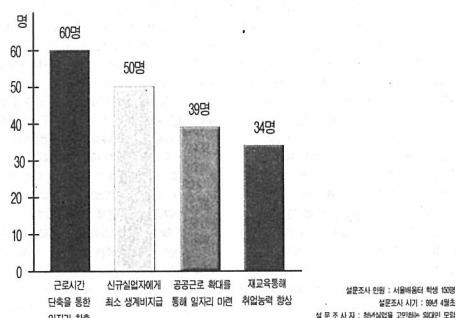
이외에 인턴사원제에 대해서는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40%) 도입해야 한다(28%)는 의견보다 높았으며, 취업연령 제한의 경우는 3명중 2명이 인간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폐해야 한다(65%)'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

## ①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의견



## ② 실업방지 및 실업대책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해야 할 정책



## ③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분석

## 인턴제·임시고용은 미봉책일 뿐

실업 및 청년 실업 문제가 IMF 이후 일시적 형상으로 호도하는 일상 언론이나, 정부의 형상 실업 대책에 대한 인식은 상황을 적설하지 못한 것이다. 경제·상장이 이루어진다는 하더라도 최근 경제의 경제 정부에서 보듯 과거에는 전혀 다른 속도와 방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청년 실업을 암울한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재전략은 자주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사회적 유연성 확대이다. 노동력과 노동시장유연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고용 노동자와의 반대에 직면하여 고용정책을 위한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는 일종의 사회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청년 실업을 장기화 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다.

노조 힘에 밀린 사회적 합의는 기본 축적 이자 하루 간의 결과를 가져온다. 기본은 이 문준에 바탕하여 직면하여 일상 회장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경제의 고도성장(과거와 같은)을 기록하면서 고집 신허 고용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기본은 노사정 위원회 인정으로는 더운 이운을 보여받아 좋고 노조는 고용이 보장되고 상대로 높은 임금을 받아 풀고, 정부는 경제상으로 진입장정부가 좋지만 그 사이에서 청년 신규 노동자나 고용자들은 상대적 경기 침체로 인한 노동 실업과 고용 불안, 경기 침체 등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넘겨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년 실업의 경쟁화 고착화로 인해 유연화 고용 즉 노년제(파트 태그램), 학원강사가 신규 진입 노동자의 일상적인 고용 형태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화는 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 노동통제가 강해지고 고용 불안과 일상화 되고 일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 결국 사회온란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세련하려고 하는 신자 유연화적 사회의 대학생과 직업인의 의견을 청년대책에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간적 노동의 권리·인권과 일할 권리·최소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확대해 발전시킬 권리가 빼앗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의식과 풍토(이데올로기)를 조장하게 되어 결국 20~30년 후의

신자유주의적 사회대기에 청년 역할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청년 실업 대책은 도무지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준 공무원 자격으로 6개월간 50만원을 준다거나 공기업 대기업의 인턴 시원을 모집하여 국가에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한정부의 대

를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월수 있는 '눈'이라고 이용하는 경제 일반이며, 인턴제와 임시고용은 유연한 고용을 일반화 시켜 경제에 미친 영향은 청년들이 노동조건을 암시화킬 것이다. 더 어려구나 없는 것은 해외인력 파견 경제인데, 정부는 70년대의 석유 파동처럼 또다시 중동으로 노동자들을 수출하는 이어 한 벌상으로 80만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해외인력파견은 이번 실업 문제가 1-2년에 해결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모션을 쓰면서 다시는 파도가 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서구의 경우 청년 노동자들은 많은 수가 중장 노동자로 되지 못하고 주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다양화 부지니스에서 사회 보조금과 파트 노동으로 중심 노동자로 진화하기 위해 간단하고 철저한 (?) 생활을 하고 있다면, 국소수의 중심 노동자로 진화한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빈층이나 불가경 취업으로 연명하게 된다. 이를 나누어 청년들은 그마사 회적 보호망이 있고 신장의 사회적 인식이 나은 편이나 나쁘거나 한국의 경우는 거의 '노망은 시마다니 거리로 죽어야 한다'는 속담처럼 사회적 무능력자로 소외받거나 생존권을 부여해 의지하면서 더욱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거나 고시 자격증을 위해 또 다른 이중고 교육비를 지출하고 나 이제한에 걸림돌로서 경력사관이 되기 위해 심지어는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청년실업을 고민하는 외대인 모암 이승주(사회·정의 3)군을 만나

## “학내에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실업자란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것인가?  
흔히 대졸 미취업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의 만능의 해결책인 낭비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 시원구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밟았다고 있는 사람들을이다.

현재 청년실업문제는 어떤 상황인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의 만능의 해결책인 낭비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 시원구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밟았다고 있는 사람들을이다.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우선 민족들에게만 고용을 전가하는 정리해고 자체에 대한 반대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실질임금 삭감없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대안이 정시화제로

합의되어야 하겠고, 일시직이나 인턴사원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감시도 필요하다.

어떤 활동을 해왔나?

청년모드는 작년 9월에 발족해서 현재 사양어 대 학생회, 동양어대 학생회, 태국어와 학회, 정의와 학생회, 프로메테우스, 미오지, 세월점, 국민승리 21, 서반아들과 타오를 등이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작년 10월째 때부터 활

동을 시작해서 정리해고와 불안정한 일자리를 춤출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의 본질을 폭로하며 주점도 열었고, 환경실 살천, 침몰시위, 스티커 선전 등을 펼쳤다. 또한 청년실업문제와 관련된 외대인들의 의식조사, 그리고 지속적인 대把握 선전작업을 해왔다.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실업문제가 정시화제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문제는 대학생과 직업인으로 양분되어 되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일상화 되고 일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 결국 사회온란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세련하려고 하는 신자 유연화적 사회의 대학생과 직업인의 의견을 청년대책에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인간적 노동의 권리·인권과 일할 권리·최소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확대해 발전시킬 권리가 빼앗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의식과 풍토(이데올로기)를 조장하게 되어 결국 20~30년 후의

김경신 기자

## 취업은 정보를 라고 온다

5월 18일(화) 5월 19일(수) 5월 20일(목)

Image Making	여대인기 취업정보	행사 전문 거점장 상영회
국제대학 센터	Brain Network	K&P Consulting co.
강 수석	김수연	김병규 변호사
강사	서준원 실장	/공인회계사
11:30~13:30		
김희내용 : 면접예습, 이직 취업안내		
강의내용 : AIOPA(미국공인 회계사) 국제 변호사 /CFA 재무분석사/APR(신비례)		

5월 18일(화) 5월 19일(수) 5월 20일(목)

Image Making	여대인기 취업정보	행사 전문 거점장 상영회
국제대학 센터	Brain Network	K&P Consulting co.
강 수석	김수연	김병규 변호사
강사	서준원 실장	/공인회계사
11:30~13:30		
김희내용 : 면접예습, 이직 취업안내		
강의내용 : AIOPA(미국공인 회계사) 국제 변호사 /CFA 재무분석사/APR(신비례)		

5월 18일(화) 5월 19일(수) 5월 20일(목)

Image Making	여대인기 취업정보	행사 전문 거점장 상영회
국제대학 센터	Brain Network	K&P Consulting co.
강 수석	김수연	김병규 변호사
강사	서준원 실장	/공인회계사
11:30~13:30		
김희내용 : 면접예습, 이직 취업안내		
강의내용 : AIOPA(미국공인 회계사) 국제 변호사 /CFA 재무분석사/APR(신비례)		

● 장소 : 도서관 4층 세미나실  
● 주관 : 외인설립준비위원회, 취업정보센터  
\* 4학년 뿐만 아니라 저학년도 참석하여 취업진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13대 졸업준비위원회





영화평 -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 아름답지만 슬픈 삶의 여정

인생은 아름답다... 팔자 좋은 소리인 것 같았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그랬다.

회원 한가득 아름다운 내용으로 깊숙하고 현실감 있는 영화로 인상의 영화일까라고 난 미리 짐작해버린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난 지금의 심정은 너무나도 깊진 것 같다.

*'La vita e bella'*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는 아름답지만 삶은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슬프면서도 한편으로 놀라움과 사랑이 담긴 신비로운 동화처럼 말이죠."라는 나레이션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1993년에 이탈리아의 고전스러운 면모로 천원적인 배경과 함께 이 주인공 키도의 생활이 펼쳐진다.

키도는 가난하지만 낙천적이고 적하며 조금은 암동한 성격의 남자였다. 그는 그 지팡에서 너무나도 극적으로 아름답던 부자집 여자친구 도모를 믿으게 된다. 그 여인은 사무원으로 결혼후에 되어 있는 여자였으나 그녀 또한 키도를 순종하고 남만적인 모임에 반해 도모와 함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이 사람에 빠지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통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사랑할 때 인생은 동화처럼 아름답다는 것이다.

키도와 아래 도모 그리고 다섯살 난 아들 조슈아... 이들을 함께 책을 열어 영화하고 행복한 삶이다. 그

러나 조슈아의 생일날, 이 영화의 날들은 끝이 난다. 이 시대에는 비로 무얼이나가 아래리를 통치하던 시대였고 귀도는 유부인이었던 것이다. 키도와 조슈아는 강제 수용으로 이송되는 차기에게 끌려가게 되고, 도모는 비록 유태인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영화라고 해도 영화를 보는 내내 눈을 한 번도 끊기거나 힘든 영화가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이때부터 웃긴 장면에서도 너무 솔직한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 아래리가 우리 나라와 정서가 비슷해서인지 이 영화가 대단해서인지로는 모르겠지만 공연장과 현상들은 분분하다. 키도는 강제 수용으로 끌려 가면서도 심장은 그 안에서 힘든 노력을 하면서도 지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아들을 위해 더 밝고 더 힘찬 모습을 보인다. 그는 조슈아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 한다. "우린 지금 게임중이란다... 너의 생활을 위해 아빠가 준비했다. 1등으로 새로운 탱크를 선물로 주는 게 돼. 그럼 몇 점이니? 그래 1000점이야. 세상이 조용해져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 그 때 나와야 해!" 이 말을 뒤로 한 채 그는 도리를 위해 다시 여러 강제 수용소로 가지만 이미 그녀는 없고 그는 독일군에게 잡혀 풍물당하게 된다.

이제 독일군은 끌고 아무도 남지 않은 고요한 상황에서 조슈아는 칠봉의 문을 끌고 열고 나온다. 강제 수용소의 음습함에 딱 그렇게 혼자온 아이는...

이 영화에 소련하와이식 최현미술이 솔로 달아온다.

진지 자사방과 빠져, 되어 있는 여자였으나 그녀는

수한 생활을 하게 된다. 어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 순수한 아이들에게 그 고통의 시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니 차라리 더욱 더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싶을 것이다. 독일군이 폐한 분위기에 키도는 조슈아와 함께 탑승을 감행한다. 조슈아를 길거리에 버려진 힘 품 속에 먼저 숨겨 놓고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가 늦어 오더라도 절대 나와서는 안돼. 지금 우리 950점이야. 너가 조용히 끌고자 여기서 숨어 있으셨을 때를 때에 돼. 그럼 몇 점이니? 그래 1000점이야. 세상이 조용해져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 그 때 나와야 해!" 이 말을 뒤로 한 채 그는 도리를 위해 다시 여러 강제 수용소로 가지만 이미 그녀는 없고 그는 독일군에게 잡혀 풍물당하게 된다.

이제 독일군은 끌고 아무도 남지 않은 고요한 상황에서 조슈아는 칠봉의 문을 끌고 열고 나온다. 강제 수용소의 음습함에 딱 그렇게 혼자온 아이는...

이 영화에 소련하와이식 최현미술이 솔로 달아온다. 진지 자사방과 빠져, 되어 있는 여자였으나 그녀는

진지 자